

『호남일록』을 통해 본 영남 선비 류휴목의 호남 체류기

최은주*

목 차

1. 머리말
 2. 『호남일록』의 기록 배경
 3. 『호남일록』 기록 내용의 특징
 4. 『호남일록』을 통해 본 19세기 영·호남 교류의 한 단면 : 맺음말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호남일록(湖南日錄)』은 류휴목(柳然睦, 1843~1898)이 1864년 11월 13일부터 1865년 7월 15일까지 기록한 일기이다. 이때 류휴목은 막 관례(冠禮)를 마친 21세의 청년이었다. 영남 상주에 사는 청년이 호남 남원의 고모가를 방문해 약 9개월 동안 체류하며 보고 들은 것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이기에, 단면적이기는 해도 당시 영·호남의 교류의 미시적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호남일록』을 기록한 류휴목은 서애 류성룡의 후손으로 상주 우천파 파조인 류진의 8대손이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류심춘 - 류후조 - 류주목으로 이어지는 우천파 종가(宗家)의 3대가 학행으로 다시 명성을 구축했고, 더불어 류후조가 영남 남인으로서 흥선대원군의 지원에 힘입어 중앙에서 여러 요직들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많은 인물들이 상주의 풍산류씨 우천파 문중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문중의 일원이면서 또 계당 류주목의 문하생이었기 때문에 류휴목이 호남

*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E-mail: ejchoi@koreastudy.or.kr

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날마다 찾아와 대화를 나누려 했다. 류휴목 집안이 남원의 안동권씨가와 혼인을 했던 배경에는 류심춘이 장수현감을 류후조가 장흥부사를 지냈던 이력이 깊이 작용했다. 이를 계기로 두 가문은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동시에 안동권씨의 혼맥을 토대로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가문이 윤선도의 후손인 해남윤씨가였다.

『호남일록』에 담겨 있는 영남과 호남의 교류 양상은 영남 남인 가문과 호남 남인 가문의 직접적인 인적 교류라는 뿌리를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와 당시 이슈들에 대한 정보 교환이 줄기를 이루고 나아가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서적 교감이 가지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일기라는 속성 때문에 영남에서 온 20세 청년 류휴목의 시선과 생각이 있을 형성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류휴목이 쓴 호남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의식적으로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기 위해 고모가를 방문했던 인물들이 전해주는 것이었다. 그들과 류휴목이 나누는 대화는 지역의 역사와 학문 그리고 당대 이슈까지 그 범위가 다양했을 뿐 아니라 폭도 넓었다. 『호남일록』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영남 남인과 호남 남인 사이에 형성된 연대감이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른 시각과 이해의 차이도 분명하게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비롯해 인적 물적 교류도 쉽지 않은 시대였으므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의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일록』의 내용이 적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사례들을 낱낱이 거론하지 못하고 기록 초반에 나타나는 대표적 사례만 추출한 것은 현재로서 남은 과제라고 하겠다.

주제어 : 류휴목, 류심춘, 류후조, 『호남일록』, 상주 풍산류씨, 남원 안동권씨, 해남 해남윤씨

1. 머리말

조선시대 개인 일기자료가 가지는 자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그 편폭이 넓고도 다변적이다. 사료적 관점에서는 그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시절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또는 업적이 뚜렷한 유명 인물이라 하더라도 특별하지 않았던 보통의 일상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는 매우 유용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미처 보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던 미시적인 세계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역사의 빈 공백을 촘촘하게 메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

기 자료는 여전히 각광받는 연구 대상이다. 역사적 사실은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선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렇게 담아내는 기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꾸려 가는지, 그러한 개인이 모여 사는 것이 곧 사회이고 더불어 그러한 개인이 움직여 가는 것이 사회이다. 일기 자료는 그 개인의 경험을 담은 기록이기에, 개인이 읽어내는 그 시대의 모습 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호남일록』은 류휴목(柳休睦, 1843~1898)이 1864년 11월 13일부터 1865년 7월 15일까지 기록한 일기이다.¹⁾ 1년이 채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주목한 이유는 류휴목이 이 일기를 작성할 당시 막 관례(冠禮)를 마친 21세의 청년이었다는 점과 영남 상주에 사는 청년이 호남 남원의 고모가를 방문해 약 9개월 동안 체류하며 보고 들은 것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전쟁일기·기행일기·유배일기 등 일기 유형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생활일기의 경우 대부분 봉제사 접빈객의 보편적 일상에 특별한 시간의 특별한 경험이 좀 더 가미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남일록』은 큰 범주에서 생활일기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내용에 접근해 보면 당시 20세 청년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세계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더욱이 19세기 영남과 호남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 거리가 상당했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영남의 청년 류휴목이 호남에 머무르며 어떤 것을 보고 들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그 속에서 당시 영호남 교류 양상을 보다 실질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호남일록』에 대해서는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선본(善本) 고서 해제집에 소개 자료로 수록된 것 외에는²⁾ 현재까지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1) 『호남일록』은 1책으로 된 필사본으로 현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기록자인 류휴목의 자필 초고본으로 파악되며, 총 9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선본(善本) 고서 해제집 3』,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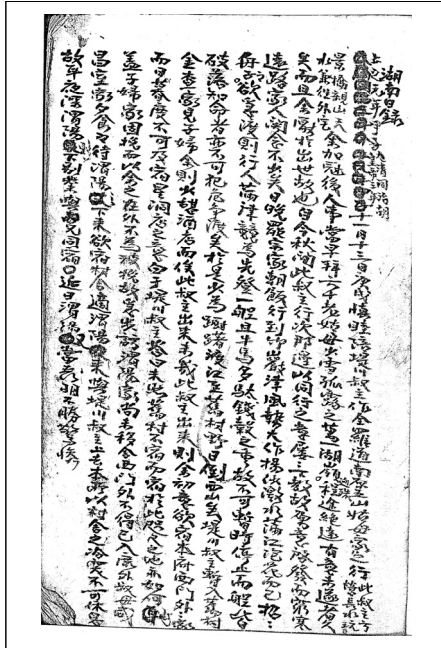


그림 1. 『호남일록』 시작 페이지
1864년 11월 13일



그림 2. 『호남일록』 마지막 달 기록
1865년 7월 시작 부분

2. 『호남일록』의 기록 배경

1) 기록자 류휴목의 가계와 가학(家學)

류휴목의 자는 민겸(敏兼)이고 호는 직재(直齋)이며 본관은 풍산이다. 초명이 신목(愼睦)인데, 일기 시작 부분에서 자신을 '신목'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일기를 작성했던 1864년까지는 초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류휴목의 가계는 풍산류씨(豊山柳氏) 우천파(愚川派)에 속한다. 서에 류성룡(1542~1607)의 셋째 아들 수암(修巖) 류진(柳袵, 1582~1635)이 안동 하회에서 상주 시리(柴里)로 이거해 뿌리를 내리면서 우천파가의 계보가 시작되었다. 시리는 현재 수암종택이 위치한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동쪽에 있는 지명이었다. 류진이 이곳으로 이거해 처음으로 가시밭을 헤치고 터를 닦았기 때문에 시리라고 하였는데, 이후에 서당을 세워 선비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창석(蒼石) 이준(李峻, 1560~1635)이 가사리(佳士里)라고 불렀다. 류진이 상주 시리에 터를 잡은 후 자손들

이 대대로 세거하다가 18세기에 이르러 류성노(柳聖魯, 1709~1782)가 우물리 현 위치에 종택을 이 건했다.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는 풍산류씨 우천과의 400년 세거지가 되는 셈이다. 수암종택을 중심으로 우천과 후손들은 대부분 상주에 모여 살았다. 류휴목 역시 상주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류진의 직계 자손 중심으로 류휴목의 가계를 파악해보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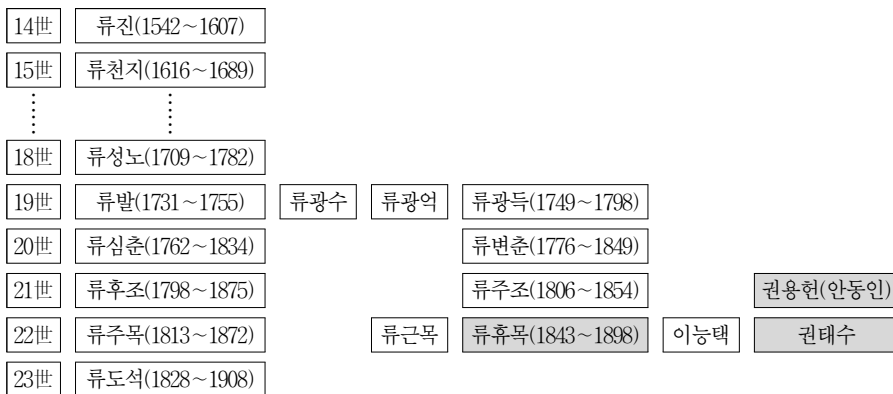


그림 3. 류휴목의 가계도

류진 - 류천지 - 류명하 - 류후겸 - 류성노까지 이어지다가 19세(世) 류발(柳潑)부터 갈라졌다. 류휴목의 증조부는 류성노의 넷째 아들 류광득(柳光得)이며, 조부는 류변춘(柳林春), 부친은 류주조(柳胄祚)이다. 류변춘은 권용헌(權用憲)을 사위로 맞았는데, 그에게 시집간 딸이 류휴목에게 남원에 사는 고모 풍산류씨가 된다. 권용헌의 아들 권태수(權泰壽)는 『호남일록』에서 내종제로 등장하며, 고모부는 류휴목이 남원을 방문했던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류휴목은 8촌형 계당(溪堂) 류주목(柳疇睦)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류휴목은 일기에서 류주목을 언급할 때 백종형(百宗兄)이라 표기했다. 류주목은 조부인 강고(江皐) 류심춘(柳尋春)의 가학을 전수했다. 향시 합격 후 문과에 응시했지만 과거의 폐해를 목격하고는 관직에 대한 뜻을 접고 상주 가사리에 계당(溪堂)을 건립해 학문에 침잠하며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그는 이항, 류성룡, 정경세, 정종로, 류심춘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계승했다. 성리학에 대한 저술을 많이 남겼을 뿐만 아니라 문하생도 적지 않았다.

3) 『豊山柳氏文忠公西厓波(生物/愚川)世譜』 참조, 豊山柳氏文忠公西厓波(生物/愚川)世譜所, 1978.

류주목의 조부 류심춘은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부사용(副司勇)이 되었고, 가주서·효림참봉을 거쳐 1797년(정조21)에 장수현감을 역임했다. 이후에도 진천현감·우익찬·우익위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삼조(三朝)에 걸쳐 시강원에 소속될 만큼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지역 사림의 유고(遺稿)를 정리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류심춘의 아들이자 류주목의 부친인 낙파(洛坡) 류후조(柳厚祚)는 1858년(철종9) 문과 급제 후 대사간을 거쳐 1864년(고종1)에는 이조참판에 이듬해에는 공조판서에 올랐다. 흥선대원군의 남인계 인사 중용책에 따라 우의정에 제수되기도 하면서 한참 동안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이다.

『호남일록』을 기록한 류휴목은 서애 류성룡의 후손으로 상주 우천파 파조인 류진의 8대손이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류심춘 - 류후조 - 류주목으로 이어지는 우천파 종가의 3대가 학행으로 다시 명성을 구축했고, 더불어 류후조가 영남 남인으로서 흥선대원군의 지원에 힘입어 중앙에서 여러 요직들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많은 인물들이 상주의 풍산류씨 우천파 문중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문중의 일원이면서 또 계당 류주목의 문하생이었기 때문에 류휴목이 호남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날마다 찾아와 대화를 나누려 했다.

2) 류휴목의 가계의 혼맥

이 장에서는 류휴목의 고모가 어떤 배경 위에서 남원까지 시집가게 되었는지 『호남일록』의 기록에 의거해 그 단서를 찾아보려 한다. 류휴목은 고모와 나눈 직접적인 대화를 일기에 종종 기록했다. 고모는 류휴목에게 그가 모르는 집안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려주기도 했는데, 자신의 혼인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류휴목은 11월 13일 상주를 출발해 10일의 여정 끝에 11월 22일 남원 오산(五山)의 고모가에 도착했다. 오산은 현재 아영면 오산리로 추정된다.⁴⁾ 다음 날 밤 고모는 류휴목의 아버지 류주조의 첫 번째 부인 안동 권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녀의 출생과 성장부터 혼인과 득녀, 그리고 죽음까지 그녀의 일생을 세세하게 들려준 것이다. 류휴목은

4) 디지털남원문화대전(<http://namwon.grandculture.net>) 오산리(五山里) 항목을 참고하면 오산리는 마을 옆 산의 형국이 자라와 같아 자라되라 불렀다고 한다. 그 후 오산(鰲山)으로 표기하다가 한문으로 ‘자라 오(鰲)’자를 쓰기에 번잡하므로 발음이 같은 오산(五山) 또는 오산(岫山)으로 고쳐 썼다고 한다. 그 뒤 지금은 오산(五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고모의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들던 것과 비슷하다며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다.

세보(世譜)에 의거하면 류휴목의 부친 류주조는 4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요절한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부인이 바로 안동 권씨(1802~1823)인데, 일기를 참고하면 안동권씨는 류주조와 1820년(순조20) 9월 26일에 결혼했고 2년 뒤 1822년(순조22) 윤3월 27일에 상주 시택으로 왔다가 다시 이듬해 친정으로 가서 딸을 낳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⁵⁾ 류휴목은 일기에서 조부와 부친이 며느리의 부음을 듣고 공주 외가로 부라부라 출발했다고 썼다. 안동권씨 친정이 공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류휴목의 생모는 네 번째 부인인 완산이씨이다.

세보에는 안동권씨의 부친이 유희당(有懷堂) 권이진(權以鎭, 1668~1734)의 후손인 권옹(權壙)으로 표기되어 있다. 권이진의 선대는 대대로 서울에 세거하며 양주 및 광주 일대에 분묘를 조성하였으나, 1627년(인조5) 그의 조부 탄옹(炭翁) 권시(權誥, 1604~1672)가 공주의 탄방(炭坊)[현 대전]으로 복거함에 따라 호서 사림에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권시는 송준길·송시열 등 서인계 학자들뿐만 아니라 윤휴·허목 등 남인계 학자들과도 폭넓게 교류했다. 예송논쟁 당시 송시열과 송준길에 대립해 윤선도를 지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같은 서인의 규탄으로 파직된 이력이 있다. 권이진의 모친은 노론의 영수 송시열의 딸이고, 권이진 본인은 소론의 영수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1)의 문인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공주의 안동권씨 유희당 가문은 서인·노론·소론·남인 등 당시 17세기 명문으로 알려진 가문과 폭넓게 혼맥을 형성했다. 그러나 권이진은 기호 남인을 계승하였고, 이후 이 가문은 호서 지역의 남인 명문가로 꼽히고 있다.⁶⁾ 류주조가 아내로 맞이한 안동권씨는 바로 이 가문의 자손이었다.

류휴목의 일기에 가끔 외가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권이진이 언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은봉(隱峰) 이봉징(李鳳徵, 1640~1705)의 신원(伸冤)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이언유(李彦儒)에 대해 이야기로 읊기자 그의 며느리가 권이진의 봉사손인 승지(承旨) 권영수(權永秀)의 딸이라며 혹시 그대의 외조부 권옹과 권영수가 몇 촌쯤 되냐며 묻는 것과 같은 류이다. 류휴목은 권이진 아랫대에서 분파되었으나 서로 가깝다고

5)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1월 23일

6)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39권, 영조10년 11월 13일. 권이진의 즐지에서 그가 남인에 가담해 숙종 때 환로에 막힘을 당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생각한다고 답했다.⁷⁾ 류주조와 공주의 안동권씨 가문과의 혼인은 류주조가 딸을 남원의 안동권씨가로 시집보내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된다. 혼맥이 영남 지역의 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호 지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그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류주조는 매부 권용헌의 사촌 형제인 권교헌(權敎憲)과 그 친분이 꽤 두터웠다. 권교헌이 류휴목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나와 고명하신 선존장(先尊丈) [류주조]은 비록 나이 차가 있지만 선존장은 나를 망년지우(忘年之友)로 대해 주셨다. 나의 고모가 선존장의 종숙모였기 때문에 정분이 더욱 남달랐다.”라고 했다.⁸⁾ 류주조의 종숙모는 류성노의 셋째 아들 류광역의 장남 류기춘(柳耆春, 1785~1847)의 부인 안동권씨(1784~1844)를 가리킨다. 동흥부원군(東興府院君) 권상(權常, 1508~1589)의 후손 권창언(權昌彦)의 딸이며, 그녀의 외조부는 해남에 거주하는 윤덕증(尹德丞)이다. 권창언은 남원의 사족이었다.⁹⁾ 이로 보아 상주 지역의 풍산류씨 우천과 문중은 선후야 어찌되었든 남원 지역의 안동권씨 문중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권교헌은 이 말을 전한 날, 류주조가 남원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류주조와의 많은 추억을 전해주었다.

남원의 안동권씨가 인물들은 그들의 선대가 장수현감을 지냈던 류심춘과도 장흥부사를 지냈던 류후조와도 일정한 교류가 있었음을 때때로 언급했다. 류휴목은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마다 일기에 기록했으므로 이를 통해 두 가문의 네트워크가 일찍부터 구축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은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교류 양상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류휴목은 일기 첫머리에서 관례 후 마땅히 예순이 된 노고모에게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영남과 호남이 너무 멀어서 마음만 먹고 실행하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다고 했다. 마침 일가인 숙부가 그곳에 불일이 생겨 행차한다기에 따

7) 류휴목, 『호남일록』 1865년 1월 9일.

8)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1월 26일.

9) 권창언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남원의 사족 권창언의 일화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남원 사는 권창언은 사족이었다. 곡식 수천 석을 내어 진제(賑濟)하였는데, 진제가 끝나는 날 조정에서는 상 주는 일을 잊어버렸다. 그 뒤 5년이 되던 갑술년(1814)에 또 큰 기근이 드니, 조정에서 그제서야 그 신용을 잃은 것을 뉘우치고 그에게 주부(主簿) 벼슬을 주고서 또 수천 석을 내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진제가 끝나는 날 또다시 잊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뒤에 또 큰 기근을 만나야만 권창언의 벼슬이 승진될 것이다.’ 하였다. 조정에서 이와 같이 신용이 없으니 어떻게 백성에게 권하겠는가.”

라 나선 것이 호남을 방문해 장시간 머물렀던 계기가 되었다.

3. 『호남일록』 기록 내용의 특징

1)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들과의 교류 양상

『호남일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류휴목이 직접 만난 인물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접 만난 인물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었다. 이 외에 전대 先賢들의 일화나 저술에 대한 내용도 적지 않은데, 이는 류휴목이 일기를 쓸 때 관련한 쟁점이 있을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록한 것이다.

류휴목은 남원 고모가에 체류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막 20세가 된 청년이었으므로 그 폭은 넓지 않았지만, 영남에서 온 그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물론 고모가의 친인척들이 대부분이었다. 고모의 시가인 안동권씨 문중의 인물들은 내종제 권태수를 중심으로 그의 당숙들과 그 자제들 그리고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다수의 인물들이 있었다. 해남윤씨 문중의 인물들도 제법 보이는데, 이것은 두 문중이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류휴목의 고모가를 수시로 드나들며 그를 만났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대화를 나누거나 호남 지역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자신들의 소회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래의 도표는 『호남일록』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류휴목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인물들만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류휴목이 직접 만난 인물들의 명단

본관	성명	字	관계	비고
풍산	풍산류씨		고모	
안동	權泰壽		내종제	
	權敎憲	文孝	내종의 당숙	
	權勉憲	士會		
	權啓憲	元甫		
	權璣憲	公執		동생 權肯憲 *진안 문수동 거주
	權鍾憲	仲英		
	權在憲	極初		
	權肯憲			

본관	성명	字	관계	비고
	權運壽	宋奎		
	權益壽	受謙		
	權兢壽	虞瑞		
	權苾壽	應郎		草庄에 거주
	權彩奎	成五		權禮壽의 아들
	權思鎰	德厚		
	權漢心	景一		
해남	尹瓏浩	彬景		해남 白浦 거주
	尹璧浩	魯應		해남 거주
	尹豊夏	仲遊		내종매부 *권태수의 매부
	尹觀夏	勝遊		윤주홍의 장자, 윤관호가 우리문중 종손이라 언급.
	尹鍾德	舜弼		종숙부(유후조)와 깊은 교유관계
	尹鍾英			
	尹柱鳳	仲羲		해남 백포 거주
	朴彩陽	雲路		본래 나주 회진에 거주, 남원 영천에 우거 고모의 시누이가 박채양의 부인
	朴勝學	君必		박채양의 맏아들
	李寅道	士允		
	李國斗	春根		
	韓友明	仲舉		
	韓友復	石泉		
	韓驥近			
	金貞商	和擘		태인현감 金星甲의 증손, 남원 오룡 거주

류휴목이 고모가에 도착한 날부터 며칠 동안 고모가의 친인척들이 수시로 방문해 그를 반겼다. 류휴목은 일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을 기록할 때마다 그의 성명 뒤에 자(字)를 반드시 덧붙였고 간혹 관계 및 거주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간단하게 주석을 달기도 했다.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인 11월 23일, 류휴목은 이날의 일기에 내종제 권태수의 당숙들이 우르르 몰려와 자신의 공부 성취도를 물으며 대화를 나눈 것을 기록했다. 이들이 정작 관심이 많았던 부분은 류휴목이 계당 류주목의 문하생이라는 점이었는데,¹⁰⁾ 이것은 류주목의 학문적 명성을 의식한 것도 있었지만 이미 형성된 인맥기반 위에서 그가 장수 현감을 지냈던 류심춘의 손자이자 당시 중앙의 요직에 재직 중이던 류후조의 아들이라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0)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1월 23일.

류심춘은 1797년(정조21) 장수현감을 역임했으며, 사후에는 전북 장수군의 도암서원(道岩書院)에 배향되었다. 이러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일록』에 등장하는 호남인들은 류심춘을 기억했고, 그와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 1864년 12월 3일

○ 권계헌의 집으로 내려가니 권계헌 어른이 그 부친의 유고(遺稿)를 보여주며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재능이 탁월하였고 성리학에 뜻이 있으셨다. 그러나 평생 신병(身病) 때문에 힘을 쓰지 못했으므로 이름이 크게 나지 못하셨다.” 내가 그 유고를 보니 과연 종조부 강고(江臯) 선생[류심춘]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는데 종조부가 인정하는 말이 많았다.¹¹⁾

류휴목이 가깝게 오갈 수 있는 거리였던 것으로 보아 권계헌의 집도 남원 오산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계헌은 자기 집에 들른 류휴목에게 선친의 유고집을 보여주었고, 류휴목은 그 속에서 종조부 류심춘이 보낸 편지를 찾아냈다. 권계헌이 류휴목에게 유고집을 직접 보여주었던 이유는 그가 류심춘의 종손자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20세 청년 류휴목에게 선대에 이루어진 교류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의미가 되었을 것이다.

• 1864년 12월 6일

○ 윤중덕(尹鍾德) 어른[字 舜弼]이 만나자고 여러 번 청하셔서 내가 마을 내 서당에서 인사를 드렸다. 이 어른은 종숙부(宗叔父)님과 교제의 정이 매우 두텁다.¹²⁾

• 1864년 12월 7일

○ 윤중덕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에게 이르기를 “화창한 봄날 햇빛이 밝을 때 한 번은 영남에 가서 고가세족(古家世族)을 방문하고 이름난 산수를 유람하였는데 늙은이가 있을 만한 좋은 곳이었다.”

11)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3일, “下去權丈啓憲家 權丈示其先人遺稿曰 吾先人有卓越之才 而有志於性理之學矣 平生以身病不能用力 故名不大出耳 余見其遺稿 則果有與從祖父江臯先生往復書 而從祖父多有獎許之語.”

12)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6일, “尹丈鍾德字舜弼 屢屢請見 故余拜於村中書堂 此丈與宗叔主交道甚厚矣.”

라고 했다. 또 말하길 “금년 봄 서울에 있을 때 종숙부[류심춘]와 날마다 서로 함께 다녔다.”라고 했다.¹³⁾

윤중덕이 어떤 계기로 류후조와 교유 관계를 형성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위의 일기를 통해 추측해 보면 윤중덕이 영남 지역을 방문해 유력 가문과 인연을 맺은 바 있었고 또한 스스로 류후조와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12월 6일의 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윤중덕이 류휴목을 몹시 만나고 싶어했던 것도 그가 류후조의 종질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20세에 불과했던 류휴목에게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더욱이 류후조는 1842년(헌종8)부터 1844년(헌종10)까지 전남의 장흥부사를 역임했었기에 호남 지역과 인연이 남다르기도 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윤옥호(尹旭浩)라는 인물이 백성들 사이에서 좋지 못한 행동을 일삼았으므로 류후조가 연회를 베풀어 해남윤씨 문중의 장로(長老)들을 초청하면서 윤옥호도 같이 불러 크게 꾸짖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류휴목이 방문한 이때까지도 윤옥호는 개과천선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류휴목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내종제 권대수가 처가 일족인 윤중민(尹鍾敏)에게 듣고 전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¹⁴⁾

류휴목이 도착해서 만난 인물들은 주로 고모가의 친인척이었다. 11월 25일 만난 인물들 가운데 윤관호(尹瓘浩)가 있었는데, 본래는 해남 백포에 살았지만 당시 남원에 머물다가 류휴목을 만났던 것 같다. 해남윤씨 가문의 일원으로 고모가와와는 혼맥으로 연결되어 서로 잦은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 밤 류휴목은 윤관호와 함께 자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이때 그에게서 류후조가 장흥부사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

• 1864년 11월 26일

밤에 윤관호(尹瓘浩) 어른과 함께 잤다. 윤관호 어른이 말하길 “그대의 재종숙 참판 어른[류후조]이 장흥부사로 계실 때 태필(太弼)[從侄(柳道奭의 字)]이 계당 어른의 명을 받아 (해남의) 연동(蓮洞)[孤山 주손(尹)柱興이 이곳에 거주함]에 왔다가 공재공(恭齋公)[尹斗緒]

13)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7일, “尹丈鍾德歸鄉時謂余曰 春和景命時 一去嶺南 訪故家世族 而且遊名山水 則襄老之境好事 又曰 今春在京時 與宗叔主逐日相從.”

14)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6일.

의 부채 그림 1장을 가지고 갔었다. 성노(星老)[(尹)柱興의 字]가 ‘항상 지금 세상에서 서화에 안목이 있는 자를 보지 못했는데 태필과 말해보니 그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어서 전날의 안목 있는 자들과 같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주고 중난(重難)하게 여기라 했다’ 말한다.”라고 했다.¹⁵⁾

윤관호의 말에 따르면 류후조가 장흥부사 재직 중일 때 그의 손자인 류도석(柳道奭)이 부친 류주목의 명에 따라 해남 연동에 다녀갔다는 것이다. 유도석이 다녀갈 때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주손 윤주홍이 선조 윤두서(尹斗緒, 1668~1715)의 부채 그림 1장을 직접 주며 귀하게 여기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윤관호가 류휴목에게 들려준 것이다. 류휴목은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기를 “이 그림을 한 번 보았는데 공재공이 손수 그린 것인 줄만 알았을 뿐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어르신 말씀 들으니 과연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주에서 그림을 보기는 봤지만 그것이 어떤 연유로 종가에 보관되어 있었는지는 몰랐다는 말이다. 이 일기로 본다면 장흥부사를 역임한 류후조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류주목과 손자 류도석까지 해남의 윤씨 가문과 이미 인연이 닿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왕래가 용이하지는 않았지만, 교류를 통해 인적 관계망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그 집안 자체인 류휴목이 찾아왔으니 묻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이다.

윤관호는 영남이 조금만 가까웠다면 자신의 가문과 류휴목의 가문 즉 해남 윤씨 가문과 풍산류씨 가문이 대대로 교분을 쌓으며 혼인을 맺었을 것이고, 나아가 나이가 어린 애들 가운데 재주가 있는 자들은 계당의 문하생이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숨김없이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자신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해남윤씨 가문의 종손(宗孫) 윤관하(觀夏)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였다.¹⁶⁾

류휴목의 내종제 권태수가 윤벽호(尹璧浩)의 딸과 결혼하였고,¹⁷⁾ 내종 누이도 윤풍하(尹豐夏)와 결혼하였으므로 고모가는 해남윤씨 가문과 혼인으로 단

15)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1월 26일, “夜尹丈璣浩同宿 尹丈曰 君再從叔參判丈 前在長興府使時 太弼[從侄道奭字]以溪堂丈命來蓮洞[孤山胄孫柱興居此] 持去恭齋公[諱斗緒]扇畫一張 而星老[柱興字]恒言 今世未見有書畫眼目者 與太弼語之 則辨其好否 如前日之見者 而少無難處 眞大家之人異矣 故吾與之 重難之物耳.”

16)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12일.

17) 류휴목, 『호남일록』, 1865년 1월 19일.

단하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있었기에 고모가에는 이 집안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이 때문에 류휴목도 이 집안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류휴목을 통해 옛 기억을 소환하고 그로 인한 친분과 관심을 끊임없이 표출했다.

권태수의 중형계로 보이는 권운수가 자신의 처족(妻族) 이최선(李最善, 1825~1883)에게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학문과 저술을 전해 들었다면서 류휴목에게 들려주는 장면이 보이는데,¹⁸⁾ 이로 보아 안동권씨 가문은 담양의 전주이씨 가문과도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파악된다. 류휴목은 진사 이최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담양 장전(長田)에 거주했다고 세주를 달았다. 이최선은 본관이 전주, 자는 낙유(樂裕), 호는 석전경인(石田耕人)이다. 1838년(헌종4) 기정진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함으로써 그의 주리설(主理說)을 계승했다. 류휴목이 이최선을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호남 지역의 당대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혼맥으로 연결된 친지들로부터 직접 전해 듣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한우복 역시 류휴목의 부친 류주조와의 인연을 내세우며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많이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과일과 같은 먹을 것을 보내주거나 종이와 먹 등을 보내주며 공부를 격려했다. 한우복과 류주조는 동갑이었는데, 1850년(철종1)에 류주조가 남원을 방문했을 때 서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때 류주조는 장흥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남원의 딸 집에 들렀던 것이라고 류휴목이 주석을 달아놓았다.¹⁹⁾

• 1864년 12월 16일

석천 한우복의 집에 갔다가 돌아왔다. 한우복 어른이 건시(乾柿) 다섯 켤미와 대추 한 그릇을 아들 운달(雲達)을 시켜 보내주며 이르기를 “독서하는 여가에 혹 과일을 먹는 것도 무미함 속에 맛이 있을 것이다. 작거나 못생긴 것은 마음에 두지 않으면 매우 다행이겠다.” 라고 하였다. 내가 앉아서 그것을 받으니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먼저 드는데 어느 겨를에 그런 마음이 들겠는가 싶어 우스웠다.²⁰⁾

18)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1월 26일.

19)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12일.

20)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16일, “韓石泉友復家尋歸 韓丈乾柿五串大棗一器 使其子雲達送之曰 讀書之暇 或食實果亦足爲無味中助味矣 勿以小且劣品爲心 甚幸甚幸 余坐而受之 先爲愧悚 何暇有是心也 笑笑.”

먹을 것과 필기구를 보내주며 류휴목의 공부를 격려했던 이는 한우복 뿐만이 아니었다. 고모가를 방문하며 그를 만났던 많은 인물들이 류휴목의 독서와 공부를 격려했다. 이는 그가 막 20세가 지난 약관의 청년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과거 공부에 매진해야 할 시기였으므로 류휴목과 대화를 나눈 이들 대부분이 그의 과거 응시 여부를 궁금해했다. 남원에 오기 전에 과거 시험을 본 적이 있는지, 왜 응시하지 않는 것인지, 시험을 보려면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도 화제가 과거시험으로 흐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호남일록』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과는 저마다의 인연이 있었다. 그 인연을 바탕으로 그들은 궁금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다.

2) 영남인 류휴목이 듣고 쓰는 호남 지역 이야기

류휴목이 쓴 호남의 이야기는 그가 남원 고모가에 머물면서 주로 전해 듣는 것들이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의식적으로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기 위해 고모가를 방문했던 인물들이 전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류휴목을 만나러 수시로 방문했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지역의 이야기를 꺼내며 류휴목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류휴목은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대화체 그대로 일기에 기록하였고,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일기에 옮긴 경우에는 그 내용 끝부분에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두기도 했다. 9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호남일록』의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류휴목이 기록한 호남 지역의 이야기를 사례별로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는 있다.

먼저 남원과 그 인근 고을 인물들의 일화에 대한 것이다. 전대 또는 당대의 유명 인물 중심으로 그 후손들과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다. 또한 전국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기록도 있다. 류휴목은 남원 고모가에 도착한 지 4일이 지났을 무렵 내종제 권태수와 이인도에게서 오희상(吳熙常, 1763~1833)과 기정진(奇正鎭, 1798~1879)과 관련한 일화를 처음 듣게 된다.

• 1864년 11월 26일

○ 류(柳) 영상(領相)[諱 永慶]의 후손으로 남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식이 조금 뛰어나 이 도(道)[전라도]에서 글재주가 있다고 자못 명성이 났다. 일찍이 시경을 읽을 때 소용(小戎)편에 이르러 병거(兵車)제도 전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채주(祭酒) 오희상[軒號 老湖]에게 질문했더니 희상이 답하길 “우리나라에는 본래 수레의 제도가 없으므로 다 알 수가 없다. 설사 형용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히려 의혹이 있을 것이다. 대개 말하기가 어려우니 의심스러운 것을 빼놓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였다. 이 사람이 본래 경전의 의미에 대해 다듬고 새기는 까닭에 의혹을 해결하고자 다시 도사(都事) 기정진에게 질문했는데, 기정진도 오희상의 말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러나 사람들에게 말하길 “내가 시경 소용장을 읽을 때 의미가 의심스러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두 명의 모(某) 산림(山林)에게 물었더니 모두 답을 하지 못했다. 비록 경전에 밝고 예학에 통달한 자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빼놓는다.”라고 했다.²¹⁾

오희상의 생몰연도를 염두에 둘 때 유영경의 후손이라는 인물이 오희상과 기정진에게 질문한 것은 시간차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류휴목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오희상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기정진은 산림학자로서 그 명성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상황이었다. 기정진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인인 기정익(奇挺翼, 1627~1690)의 5대손이다. 주지하듯이 율곡 이이에서 송시열로 이어지는 학문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문하에서 이최선(李最善), 조성가(趙性家), 정재규(鄭載圭), 최숙민(崔琚民), 기우만(奇宇萬), 오준선(吳駿善), 정의림(鄭義林) 등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으므로 이항로(李恒老)의 화서학과(華西學派), 전우(田愚)의 간재학과(良齋學派), 송병선(宋秉璿)의 연재학과(淵齋學派)와 함께 조선 후기 기호학파의 큰 줄기를 형성하였다. 류휴목이 호남에서 기정진과 관련된 일화를 듣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웠다. 따라서 『호남일록』에는 기정진에 대한 기록이 종종 나타난다.

21)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1월 26일, “柳領相[諱永慶]後孫居南原者一人 學識稍優 此道頗有實才之名 嘗讀葩經之小戎章 而曲疑兵車之制度全體 質于吳祭酒熙常[軒號老湖]曰 我國本無車之制度不可盡識也 設使形容言之 言者聽者有有疑惑 大抵難言而莫若疑者闕之也 此人本刻削於經義 故欲爲解惑 又質于奇都事正鎮 則正鎮與熙常之言無差殊 故此人退謂人曰 吾於葩經小戎章有疑義 而不能解釋者 有年問于兩某山林 則皆不能答 雖明經達禮者 疑者闕之.”

위의 예문은 이날의 일기 중에서 일부만 발췌한 것인데, 류휴목이 남원에 도착해 기정진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계기와 상황을 보여준다. 경전에 밝고 예학에 통달한 자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빼놓는다면서 오히려 기정진 두 학자를 폄하하는 발언을 전해 들은 류휴목은 산림학자라고 역설을 내세워서 안 된다며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언급했다.

이인도는 류휴목의 이 대답을 듣고는 “지금 들으니 노형(老兄)이 학자의 가문에서 성장해서 이렇게 학자를 돕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라고 그 의미를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류휴목은 남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망설(妄說)을 늘어놓는 것은 진정한 학자가 아니라고 자신의 본뜻에 대해 확실하게 못 박았다. 이 일화는 류휴목이 객관적 시각으로 기정진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기정진의 명성을 익히 들었을 것이기에 그에 대한 존중이 의식적으로도 드러났을 확률이 크다.

류휴목은 남원에 체류하는 동안 기정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들었다. 그것은 기정진의 학행과 관련한 일화일 때도 있었고 학문적 명망이 높아 지역에서 따르는 이들이 많다는 칭찬일 때도 있었다. 대체로 수긍하며 그를 높이 평가한 류휴목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기정진을 두고 퇴계 이후 일인자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령된 말이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와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류휴목은 12월 2일의 일기에 현종 때 경연에서 있었던 기정진의 일화를 권태수로부터 전해 듣고 기록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 선뜻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시 현종이 해석이 모호한 글자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시신(侍臣)들이 모두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우의정 권돈인(權敦仁)이 장성(長城)에 거주하는 기정진을 추천했다고 한다. 기정진이 마침 부름을 받고 조정에 올라와 있을 때라 현종을 알현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아뢰었더니 현종이 몹시 탄복하며 ‘한쪽 눈의 문장(文章)을 천년토록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라고 칭찬했다는 이야기였다. 류휴목은 들은 대로 기록한 후 마지막에 태수에게 ‘그것이 어찌 사실일까’라며 믿지 않는 마음을 표출했다.²²⁾ 일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종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정진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컬은 것이라고 주석을 달아놓았다.

22)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2일.

윤관호가 류휴목에게 호남 지역 선비들이 과거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실제적인 공부에 어둡다며 한탄한 적이 있었는데, 이날 그는 단지 기정진만이 명실상부해서 학도들이 매우 많다고 칭찬했었다. 그러나 기정진이 ‘우리 당(黨)’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뜻과 도를 같이 할 수가 없어서 피차간에 소식이 적막하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²³⁾ 윤관호의 이러한 생각이 보여주는 것은 기정진이 남인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류휴목이 기정진을 인정하면서도 완전하게 존송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의식과 닿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류휴목은 류주목의 문하생이었으므로 여러모로 본인의 스승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윤관호는 영남이 조금만 가까웠다면 호남 지역 남인 가문의 자제들이 계당의 문하를 중용했을 것이라며 매번 안타까워 했었다. 류휴목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학술적 교류를 언급하며 거리가 무슨 상관있겠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남원에서 9개월 가까이 지내는 동안 류휴목은 기정진의 소식이나 관련한 일화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도 종종 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 제자 중의 누군가가 기정진이 학문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내용 같은 것이었다. 그 제자는 김녹휴(金祿休)라는 인물인데, 하서 김인후의 주손 참봉 김경휴의 동생이라고 했다. 김경휴는 장성 월평에 거주했고, 전라도 사대부 가운데 손꼽히는 부자였으므로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²⁴⁾

다음은 윤관호를 비롯한 해남윤씨 가문의 인물들이 들려주는 그 집안 이야기다. 윤관호의 언급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해남윤씨 가문은 호남의 남인 가문이었다. 이 때문에 영남 남인 가문의 자제 류휴목에게 느끼는 감정이 또 남달랐다. 지역의 학문과 역사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었던 화제 거리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가 오고 갔지만, 서인 노론계와의 갈등 때문에 어그러진 일에 대한 언급과 한탄도 적지 않았다.

• 1864년 11월 28일

윤관호 어른이 지금 세상의 도(道)에 대해 탄식하며 말하길 “우리 윤씨 중에 조정의 관직자가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이 목숨 걸고 저해하기 때문에 대소사(大小事)가 하나

23)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12일.

24) 류휴목, 『호남일록』, 1865년 2월 24일.

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²⁵⁾

조정에 진출한 가문의 인물들이 어떤 일을 도모해보려 해도 당시 노론계 조두순이 주요 관직에 있으면서 일마다 방해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장면이다. 윤관호는 담양 창평에 있는 송강서원이 원래는 자신들의 선조 고산 윤선도를 배향하기 위한 서원 터였는데, 당시 서인들의 방해로 송강 정철을 추모하는 서원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다. 윤관호는 이날 류휴목에게 그 배경과 내력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²⁶⁾

『호남일록』에는 류휴목이 남원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당시 남원 지역의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다. 이러한 세세한 이야기들은 현장감이 생생하게 배어 있는데, 일기자료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 1864년 12월 16일

○ 헌종의 국상(國喪)때 남원의 곡반(哭班)에서 좌례(座禮)의 다툼이 있었다. 그 실상은 이러하다. 참판 김한익(金漢益)이 곡반에 들어가 기녀를 불러 술을 마시며 못하는 짓이 없었는데 승지 박규서(朴奎瑞)가 마침 그것을 보고 실례(失禮)한 행동이라 여겨 김한익의 상좌(上座)에 앉으려고 한 것이다. 김한익이 크게 분노하며 꾸짖기를 “너는 지처(地處)로 논하더라도 관직으로 논하더라도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현격한데 어찌서 나보다 윗자리에 앉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규서 또한 성을 내며 큰소리로 말하길 “내가 비록 하나라도 나은 것은 없지만 예의를 잃은 사람과 같은 줄에 앉는 것이 오히려 수치스러운데 하물며 그 아랫자리에 앉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것이是非가 되어 한 고을이 크게 어그러졌으니 어떤 이들은 김한익을 옹호하고 어떤 이들은 박규서를 옹호했다고 한다.²⁷⁾

25)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1월 28일, “尹丈瓘浩言當今世道歎曰 吾尹氏朝廷在位者 不無向念 而領府事趙斗淳抵死沮害 故大小事間一無可爲耳.”

26)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20일.

27)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16일, “憲廟之喪 南原有哭班座禮之爭 其實金參判漢益入于哭班 呼妓酌酒 無所不至 朴承旨圭瑞適見之 以爲失禮之體貌 欲居漢益之上座 漢益大怒曰 余以地處論之 爵位論之 天壤懸殊 何以坐吾之上座耶 圭瑞亦發憤大聲曰 吾雖一無長處 與悖禮者同列猶爲羞恥 況居於下座耶 以此固爲是非 一鄉大乖 或右漢益 或右圭瑞云.”

위의 예문은 김한익(金漢益, 1787~1859)과 박규서(朴奎瑞, 1795~?) 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남원 출신의 관직자들로 현종의 국상 때 남원의 곡반(哭班)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사건의 실상을 생생하게 일기에 옮겨 놓았다. 현장에는 없었지만 둘이서 주고받은 대화까지 기록할 정도로 상세하게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한익을 옹호하는 무리와 박규서를 옹호하는 무리로 나누어질 정도로 남원 고을에는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킨 사건이었기에 류휴목까지 소문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류휴목은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후 자신의 생각과 시비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기도 했다.

『호남일록』에는 이외에도 지역의 이슈가 수시로 등장한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일 때도 있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전 시대의 것을 소환하기도 한다. 권삼규가 당시 남원의 유학 한 명이 대책문을 올린 것을 전해주며 그 내용과 파급 영향을 설명해 준다(28) 남원부사 안응수(安膺壽)의 수령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 등 낱낱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녹아 있다. 또한, 남원을 비롯한 전라도 출신의 재능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언급도 적지 않다.

3) 호남인들이 주목한 영남 지역 이야기

호남 지역의 인물들이 궁금해하며 류휴목에게 물었던 것 또한 크게 보면 그 내용을 일정한 갈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인 부분은 바로 류휴목의 삼종형이자 스승이었던 계당(溪堂) 류주목(柳疇睦)에 대한 것이었다. 류휴목이 고모가에 도착한 다음 날인 11월 23일에 내종제 권태수의 당숙 4명이 모두 찾아와 그에게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류주목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류휴목은 내종제의 당숙들이 자신의 공부 수준을 궁금해하면서 물었던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자신의 대답과 생각도 상세하게 기록했다.

당숙들의 질문은 “그대는 삼종형 계당[백종형 현호(軒號)]의 문하에 있으니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다. 계당이 남을 가르칠 때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이었다. 류휴목은 계당의 모든 가르침이 일용상행(日用常行)에 집중되어 있을 뿐 특별한 건 없다고 대답하면서도 다만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求放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을 들은 권교현이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학자의 일이니 다르게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말을 들으니 참으로

28)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8일.

묻지 않아도 선생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구나!”라며 탄복했다. 류휴목은 이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선현들의 구방심(求放心)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적어 나갔으며 마지막으로 8대 선조인 류진(柳珍)의 언급을 상기하면서 이 일화를 마무리했다.²⁹⁾

류휴목을 만나자마자 류주목에 대해 물었던 만큼 고모가의 친족들은 그에 대해 많은 것을 궁금하게 여겼다. 그래서 『호남일록』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록이 자주 보인다. 이를 뒤 또 다른 친족들이 함께 찾아와 류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동안 나누었는데, 아래의 예문은 그 중의 일부이다.

• 1864년 11월 25일

권재현 어른[字 極初]·윤관호 어른[字 彬景, 지금 해남 백포에 거주] 등 모두 나를 보러 왔다. 좌중에는 권교현 어른과 권계현·권기현도 있었다. 권교현이 묻기를 “계당이 집에서 기거할 때의 일상은 어떠한가?”라고 했다. 내가 답하길 “오랜 시간을 문자(文字) 수응(酬應)과 빈객 접대에 골몰하시느라 여가가 없으십니다.”라고 했다. 권교현이 말하길 “문자라면 서(序)·기(記)·발(跋)·비갈(碑碣)·전(傳)·잠(箴)·명(銘)·송(頌)·행장(行狀) 등의 일인 것을 알 만하다. 빈객 응대하는 사이에 그의 威儀와 동작에는 수렴할 만한 것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중략)… 권교현이 묻기를 “지금 세상의 학자들 중에 간혹 억지로 힘써서 조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학문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하다. 내가 서울에 있을 때 溪堂의 이름을 익숙하게 들었으니 영남에서 최고라 하던데 과연 어떠한가?”라고 했다. …(중략)… 권기현이 곁에서 듣고 있다가 말하길 “그렇다면 계당의 문하에 종유(從遊)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며, 그중에 학생으로 이름난 자들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후략)…³⁰⁾

류주목 만큼이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은 곧 류주목의 부친이자 기록자 류휴

29)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1월 23일.

30)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1월 25일, “權丈在憲字極初尹丈瓘浩字彬景[今居海南白浦]皆訪余 而座上權丈教憲啓憲璣憲在焉 教憲問曰 溪堂居家日事何事歟 余曰 長以文字酬應 及賓客接待汨沒無暇矣 教憲曰 文字則可知序記跋碑碣傳箴銘頌行狀等事 而但應賓客之際威儀動止有收斂之事乎 …(중략)… 教憲曰 今世之學者 或有勉強造作之人 是不足爲學 而吾在京時 熟聞溪堂之名 則嶺下領袖果否 …(중략)… 璣憲在傍聽焉問曰 然則門下從遊者幾人 其中學行名者誰某耶 …(후략)…”

목의 삼종숙(三從叔)인 류후조였다. 당시 류후조는 1858년(철종9) 문과에 급제한 후 중앙에서 관직 생활 중이었다.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류후조를 가리켜 ‘참판장(參判丈)’ 등 관직을 붙여 호칭했고, 류휴목 또한 ‘좌랑숙(佐郎叔)’이라 기록하며 관직을 담아내기도 했다. 11월 27일의 일기에는 권기현이 봄 사이에 서울 소식을 들었을 때 참판 어른[류후조]이 상소를 올렸다는 소식도 들었다면서 진짜 그러한지 묻는 장면이 보인다. 류휴목은 권기현의 질문에 대해 자세하게 대답한 내용과 함께 그와 주고받은 대화를 상당 분량으로 기록했다.³¹⁾ 류후조에 대한 관심은 주로 그의 정계 활동에 집중된 것이었다.

• 1864년 12월 5일

○ 권기현 어른이 “영남의 병호[屏山과 虎溪] 시비가 지금은 어떠하냐?”라고 물었다. 나는 “이 시비(是非)가 영남으로 말한다면 남인과 노론의 시비보다 심해서 영남의 운수(運數) 아닌 것이 없으니 우리 당(黨)의 불행입니다. 더불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권기현이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화합할 수 있는 방책은 없는 것인가?”라고 물어서 나는 “피차를 막론하고 시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타파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또한 한 사람 한 가문의 일이 아니어서 의견이 각각 다르니 화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양쪽과 무관한 자들이 수컷 울자 암컷 울듯이 수레바퀴 자국을 한층 더하듯이 하니 어떻겠습니까. 이 시비는 위에서부터 타파해야만 그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비록 집언(執言)하는 군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오랜 세대 후의 공의(公議)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 따름입니다. ... (후략)...³²⁾

위의 예문은 권기현이 류휴목에게 영남 지역의 병호시비에 대해 물은 것이다. 대략은 알고 있지만 그 상세한 내용과 경과가 궁금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

31)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1월 27일.

32) 류휴목, 『호남일록』, 1864년 12월 5일, “權丈璣憲問曰 嶺南屏虎[卽屏山虎溪]是非 今則何如耶 余曰 此是非以嶺南言之 甚於南老是非 莫非嶺南運數 吾黨之不幸之事耳 與不可言孰是孰非矣 璣憲曰 雖然或無和合之策耶 余曰 無論彼此 是非主人則雖或有同心打破之計者 然亦非一人一家之事 則意見各不同難可和合矣 且無關於兩問者 雄唱雌和 展轍層加 奈何 此是非 自上打破則已 不然則雖執言之君子莫可奈何 不如俟百世之公議而已.”

지하듯이 병호시비는 1620년(광해군12) 여강서원을 건립하면서 발생한 류성룡과 김성일의 배향 때 位次 시비를 계기로 안동을 비롯한 영남 유림들이 병파(屏派)와 호파(虎派)로 나뉘어 전개된 향전(鄉戰)이다. 류성룡의 후손이었던 류휴목은 병파에 속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류휴목은 자신의 입장에서 시비를 주장하기보다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을 답답해했다.

이외에도 이 지역 인물들은 류휴목에게 영남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물었다. 예컨대 영남의 동학 정세에 대한 것이라든지 학봉 김성일의 후손이 강진에 유배온 것을 아느냐며 그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홍선대원군의 정책과 나라 정세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것은 류휴목의 재종숙부 류후조가 홍선대원군과 각별한 관계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겨우 20세였고 정작 남원에 함께 머무르고 있음에도 류휴목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그에게 서울 소식을 묻거나 대원군의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종종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4. 『호남일록』을 통해 본 19세기 영·호남 교류의 한 단면 : 맺음말을 대신하여

『호남일록』에 담겨 있는 영남과 호남의 교류 양상은 영남 남인 가문과 호남 남인 가문의 직접적인 인적 교류라는 뿌리를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와 당시 이슈들에 대한 정보 교환이 줄기를 이루고 나아가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서적 교감이 가치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일기라는 속성 때문에 영남에서 온 20세 청년 류휴목의 시선과 생각이 있을 형성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풍산류씨 우천파의 파조는 서애 류성룡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이다. 그가 하회를 떠나 상주에 정착하고 이후 대대로 세거하면서 400년에 가까운 가문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류진의 직계 자손인 6대손 강고 류심춘부터 낙과 류후조 그리고 계당 류주목까지 이들이 19세기 당대에 정치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일정한 세력과 영향력을 구축함에 따라 가문의 입지가 더욱 부각되었다. 상주는 지리적인 위치를 토대로 영남과 경호(京湖) 사림의 교류가 타 지역에 비해 원활했다. 이 가문의 혼맥을 이리저리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현상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그중에 류휴목의 부친 류주조의 혼인도 포함된다. 류주조의 첫 번째 부인은 공주에서 시집 온 안동권씨로 그녀는 유

회당 권이진의 자손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권이진의 가문은 서인·남인·노론·소론 모두 혼맥과 혈맥으로 얽혀 있었지만, 공주에 정착한 이후 가문 안팎에서 바라볼 때는 충청지역의 유력한 남인 가문이었다.

풍산류씨 우천파의 지역을 넘어서는 혼인은 류주조가 자신의 딸을 남원의 안동권씨가로 시집보내면서 더욱 확장되었다. 이 배경에는 류심춘의 장수현감 재직과 류후조의 장흥부사 재직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류휴목의 가문은 호남 지역의 인물들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고 서로 왕래하며 나름의 교류 관계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남윤씨 가문과도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주지하듯이 해남윤씨는 윤선도로 대표되는 호남의 명망 있는 남인 가문이었다. 윤관호가 노사 기정진의 학문과 덕행을 인정하면서도 우리黨이 아니기 때문에 뜻과 도를 함께 할 수 없어 서로 간의 교류가 없다는 언급은 지역 내에서도 당색으로 인한 소통 부재가 여전히 만연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류휴목의 남원 방문은 호남 지역 남인 가문의 인사들이 주목할 만했다. 그의 가문이 남인 계열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류후조의 정치적 행보가 남인에게는 큰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류후조는 홍선대원군의 남인 복인 중용 정책에 따라 요직을 두루 역임했고, 대원군과 여러 통의 편지를 주고받을 만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었다.³³⁾ 『호남일록』에는 호남 지역 인물들이 대원군의 국정 운영에 대해 여러모로 궁금해하며 류휴목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류휴목은 아는 만큼 대답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때로는 자신 또한 호남에 머물고 있는데 서울 소식을 어떻게 알겠냐며 우습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호남일록』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류휴목이 나눈 대화는 지역의 역사와 학문 그리고 당대 이슈까지 그 범위가 다양했을 뿐 아니라 폭도 넓었다. 19세기 조선의 정세는 말 그대로 혼란기였다.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농민 봉기가 지속되었고,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되고 있었으며, 해안가에는 서양의 선박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며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다.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최제우는 동학을 창도하기도 했다. 『호남일록』에는 당시 어지러운 사회적 동향에 대한 것도 주요 화제로 삼아 비교적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날이 많았다. 영남과 호남이라는 물리적 거리 때문에 듣기는 했으나 자세하게 알지 못하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면도 많이 나온다. 더불어

33) 류후조와 홍선대원군이 주고받은 편지는 ‘운현간첩(雲峴簡牒)’이라는 제목으로 수암증가에서 정리 보관하고 있다. 현재 상주박물관과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유통되던 책들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빌려보거나 이리저리 수소문하는 기록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호남일록』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영남 남인과 호남 남인 사이에 형성된 연대감이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른 시각과 이해의 차이도 분명하게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비롯해 인적 물적 교류도 쉽지 않은 시대였으므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음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의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호남일록』의 내용이 적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사례들을 낱낱이 거론하지 못하고 기록 초반에 나타나는 대표적 사례만 추출한 것은 현재로서 남은 과제라고 하겠다.

논문접수일: 2023. 02. 28. / 심사개시일: 2023. 03. 16. / 게재확정일: 2023. 04. 07.

참고문헌

1. 자료

柳然睦, 『湖南日錄』,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한국고전종합DB, 『조선왕조실록』.

2. 단행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2012,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善本 古書 해제집 3』, 계명대학교 출판부.
한국국학진흥원, 2020, 『풍산류씨 우천문중』 국학자료목록집 70, 도서출판 청솔.
豊山柳氏文忠公西厓波(生物/愚川)世譜所, 1978, 『豊山柳氏文忠公西厓波(生物/愚川)世譜』.

3. 논문

김대현, 박명희, 『해남윤씨문헌-해남윤씨 어초은공파 기록자료의 체계화』, 『한국시가문화연구』 27호, 387-409쪽.

<Abstract>

A Yeongnam Classical Scholar's Stay in Honam Area during 19th Century

The Aspect of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Yeongnam and Honam Areas during 19th Century in 『Honamilok』 by Ryu Hyu-mok

Choi Eun ju*

『Honamilok』, written by Ryu Hyu-mok(1843~1898), is a journal from November 13, 1864 to July 15, 1865. At that time he was a 21-year-old young man who just finished Coming-of-Age Ceremony(冠禮). This is a diary written by a young man living in Sangju of Yeongnam about what he saw and heard in detail in Honam when he visited and stayed at his aunt's for approximately nine months. Even though it is pretty fragmentary, it can be considered as a useful resource that shows the microscopic aspect of exchange between Yeongnam and Honam areas.

Ryu Hyu-mok is a descendant of Ryu Seong-ryong, and 8th generation from Ryu Jin of Sangju Woocheonpa. In 19th century, three generations of Woocheonpa from Ryu Sim-chun to Ryu Hu-jo and Ryu Ju-mok established the family's reputation again with learning and virtue. In addition, Ryu Hu-jo got through many important government positions supported by Heungseon Daewongun as Yeongnam Namin, so many famous figures of the time showed deep interest in the Woocheonpa family. Since he was a member of this family and a pupil of Gyedang Ryu Ju-mok, he gathered much attention from local people when he visited Honam, and people tried to visit him to have conversations each day. In the background of marriage between Ryu Hyu-mok family and Andong Gwon family of Namwon, there were careers of Ryu Sim-chun as Jangsuhyeongam and Ryu Hu-jo as Jangheungbusa. With these, the two families established exchange network, and at the same time, its scope could be expanded based on the marriage network of Andong Gwon family, and the representative clan was the Hanam Yun family, descendants of Yun Seon-do.

* Senior Researche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he stories of Hunam written by Ryu Hyu-mok were told by people who visited his aunt's house instead of his direct experiences or visits. Conversations between Ryu Hyu-mok and them were in a wide range from local history, study and contemporary issues. The situation of the 19th century Joseon was chaos itself. There were small and big farmers' uprisings throughout the country, the Catholic was expanding, and many Western vessels frequently appeared along the coast, threatening the country. As the consciousness of crisis towards the West was increasing, Choi Je-woo advocated Donghak. 『Honamilok』 covered the chaotic social trend as main issues for relatively serious conversations. There was also the exchange of issues that people heard but didn't know in detail due to the distance. In addition, since books of each area were different, there are many records of borrowing or seeking books only available in Honam.

Along the records of 『Honamilok』, there is clear bond formed between Yeongnam Namin and Honam Namin, but there is difference of views and understanding as well. Because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weren't easy together with information at that time, it shows that communications weren't smooth in various aspects. Even though the journal was written for a rather short period of time, each case couldn't be mentioned due to the length of the contents of 『Honamilok』, but representative cases were extracted,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current task.

Key Words : Ryu Hyu-mok, Ryu Sim-chun, Ryu Hu-jo, 『Honamilok』, Sangju Pungsan Ryu Clan, Namwon Andong Gwon Clan, Haenam Haenam Yun Clan